

음식물찌꺼기 돼지사료로 본격 활용

—중앙개발(주) 본회에 잔반 초고속발효건조기 기증

취재: 김동성

음식물 찌꺼기가 돼지사료로 본격 이용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중앙개발(주) (대표: 허태학)은 잔반을 발효시켜 돼지사료로 만들 수 있는 초고속발효건조기 1대를 본회에 무상 기증했다.

중앙개발(주)는 8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 소재 용광축산에서 노영한 본회 전무와 허태학 중앙개발(주) 대표이사, 관련업계 인사, 양돈농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초고속발효건조기 기증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학 중앙개발(주) 사장은 본회에 초고속발효건조기 1톤짜리 1대와 이



▲ 중앙개발(주)이 본회에 잔반 발효건조기 1대를 기증하고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에 부속된 전동투입장치, 스크린, 배출장치, 잔반수거통 등을 기증하고 노영한 전무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 본회는 발효건조기를 회원농가인 용광축산(대표: 정인덕)에 설치하여 이

용토록 했다.

현재 중앙개발(주)에는 제1, 제2공제회관과 기술원, 종합연수원, 삼성국제경영연구원 등 7군데의 대형 식당에서 1일 약 1, 100kg의 잔반이 발생되는데,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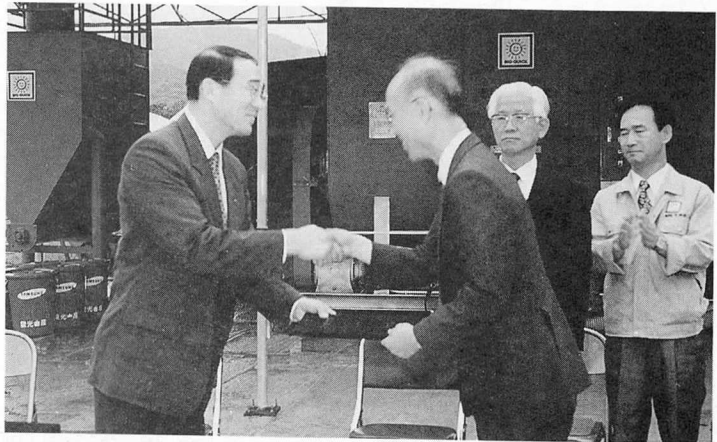
광축산에서 매일 이를 수거, 발효사료를 만들어 돼지에게 급여하게 된다.

1일 1,280kg 잔반처리로 사료 700kg 생산

이날 기준된 발효건조기 기종은 KDS-1000으로 1회 640kg의 잔반을 처리할 수 있으며 1일 2회 가동할 경우 1,280kg의 잔반을 처리해 약 700kg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발효시간은 1회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수분 조절을 위해 쌀겨, 밀기울 등을 잔반량의 1/3가량 첨가해야 한다.

중앙개발(주)에서 전기시설비, 잔반 운반비도 지원

잔반운반은 부패방지를 위해 용광축산에서 중앙개발(주)이 제공한 냉동차를 이용해 1일 1회 수거하는데, 운반에 따른 제비용은 중앙개발(주)에서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월 330만원 가량이다. 중앙개발(주)은 이밖에도 용광축산에 기계설치에 따른 전기시설비 일체와 발효제 구입비도 전액 부담한다. 기계가 고장날 경우엔 2년간 기계제작사에서 일체의 하자보수를 해



▲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전동용 회장을 대신해 허태학 중앙개발(주)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왼쪽이 허태학 대표이사)

주게 된다.

용광축산은 비육돈 500여두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전업농으로 잔반을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생산비의 60~70%에 달하는 사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입 개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부푼 기대에 차 있다. 그러나 잔반의 경우 여름철에 부패할 수 있으며, 이쑤시게 등 이물질의 혼입으로 문제점도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잔반 이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발효기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인 광덕기공(주) (대표: 여광웅)에서 개발하였으며, 93년과 94년 2년 연속 환경산업전에 출품하여 재활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계이다.

최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일부터 1일 평균 급식인원이 3,000인 이상이거나 객석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잔반을 재활용해야 하는데,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한 벌칙규정 때문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잔반 사료화 촉진위해 정부 지원 있어야

특히 전체 쓰레기중 31.4%가 음식물 쓰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발효건조기 기증을 통한 잔반의 사료화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을 재활용하여 양돈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쑤시게 등 이물질 혼입과 수거, 운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잔반이 돼지사료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에서도 식당에서의 이쑤시게 사용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막대한 처리비용과 처리장소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측면에

서 정부가 잔반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날 기증식에서 허태학 중앙개발(주) 대표이사와 노영한 본회 전무는 기증사와 답례사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오늘을 계기로 잔반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한 전무는 이날 본

회 전동용 회장을 대신해 허태학 중앙개발(주)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허경구 사원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번 중앙개발(주)의 발효건조기 기증 및 잔반 운반비 지원으로 타 대기업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을 통해 잔반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기증식은 그 파급효과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툰 밥

툰밥구입에 어려움을 겪지않으십니까?

이제 걱정마십시오.
저희 동신목재에서 툰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귀하의 소득을 증진시켜 드릴 것입니다.

동 신 목 재

대표 : 곽 춘 신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촌동 90-1

전화 (032) 574-2832